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부산·경남 지회를 소개 드립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부산·경남 지회는 1982년 2월 지회장 신종우 (부산의대 소아과), 부지회장 조중환 (메리놀 병원 이비인후과), 총무간사 고한진 (부산의대 이비인후과), 학술간사 신영기 (부산의대 소아과)로 구성되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모여 총 85명의 회원으로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지회장 정이영 (경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부회장 정진아 (동아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진아), 총무 남영희 (동아대병원 알레르기내과), 학술 이사로 정영희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규섭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조규섭), 이승은 (양산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임원단으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회의 장점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분야에서 대학병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지회 일정은 종설과 증례 2개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3개의 임상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종설을 진행하며, 진료 중 어려움을 겪었거나, 흥미로웠던 환자 증례로 이루어 집니다. 진료 과가 아닌 선생님들의 의견과 진료 경험에 대한 발표에 대해 각 분야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여 진료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마지막 지회에서는 부울경 이외의 지역에서 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회에서는 지회 모임과 함께 분야별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과 모임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부산과 경남 소재의 7개 대학병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기관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연구로 2011년과 2016년 기간 동안 부산과 서부경남의 주요 항원 감작률에 대한 지역별 차이 및 종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2017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지회 연구비를 수혜 받아 '부산·서부 경남지역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흡입항원 양성률의 변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모임에서는 매년 대한소아알레르기 대구경북 지회와 함께 개최하는 영남 소아알레르기심포지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임의를 마친 강예찬(삼성 창원병원), 김광훈(부산백병원), 노영은(창원경상대병원), 정성수(양산부산대병원) 회원이 합류하여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경남 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료 중인 회원들과의 활발한 진료정보 및 학문적인 교류와 친목을 유지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